경주생태관광 스토리텔링
‘남산 문화 유적 답사’

2009. 7

국립공원 | 경주
KOREA NATIONAL PARK

국립공원관리공단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생태관광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남 산 문 화 유 적 답 사

〈 목 적 〉

경주 남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가 없을 만큼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경주 남산 자락에는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탄생지인 나정과 6부 촌장들의 위폐를 모신 양산재가 있고 시조왕과 왕비가 묻힌 오릉을 비롯한 왕릉과 탑, 절터가 있다.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남산을 오르며 자연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신비한 전설 이야기와 설화를 듣고, 한옥체험, 다도체험, 두부 만들기, 마을 주민과 협조하여 제철 농산물 수확 및 먹기 체험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화랑정신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Ⅰ 개요

□ 프로그램 명 : 남산문화유적답사
□ 범주 : 자연해설, 역사문화해설, 자연 및 역사문화체험
□ 운영시기 및 대상 : 구분없음
□ 운영경로

구분	운 영 경 로	이점
1안	오릉 출발 ~ 나정 ~ 양산재 ~ 월암재(전통차 체험 계절따라 특화 음식 먹기 및 참가자 인사 및 소개) ~ 소달구지(또는 경운기)로 이동 ~ 남간사지 ~ 창림사지 (신라 화랑이 되어 활쏘기 체험) ~ 포석정(신라, 후백제 전쟁놀이) ~ 삼릉 ~ (탐방로 따라) 목없는석불좌상 ~ 선각육존불 ~ 마애여래좌상 ~ 석조여래좌상 ~ 바둑바위	남산의 삼릉에서 바둑바위까지 산행을 하면서 숨어있는 문화유적을 볼 수 있음
2안	오릉 출발 ~ 나정 ~ 양산재 ~ 월암재(전통차 체험 계절따라 특화 음식 먹기 및 참가자 인사 및 소개) ~ 소달구지(또는 경운기)로 이동 ~ 남간사지 ~ 창림사지 ~ 두부만들기 ~ 서출지~ 통일전 ~ 화랑교육원(신라 화랑이 되어 활쏘기 체험) ~ 탑곡 부처바위 ~ 보리사 ~ 감실불상 ~ 포석정	신라 역사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저지대를 돌며 재미있게 답사할 수 있음

II 시나리오

오릉은 누구의 무덤 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유적답사를 하게 되에 무척 기쁩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 왕조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 경주를 찾는 답니다. 가는 곳 마다 절터요, 유적입니다. 경주는 산에도, 큰 바위에도, 강에도, 골목길에도 모두 전설과 설화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적지를 답사 하면서 재미있는 전설이야기를 많이 들려 드릴께요.

신라가 통일 후 8c경 전성기 때는 수많은 기와집들이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귀족들이 사는 40여 채의 금으로 장식 된 '금입택'이 있었답니다. 이곳은 소나무를 비롯한 고목나무 들이 많죠? 옛날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 한 숲 이였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산 같이 큰 무덤이 다섯 개나 있죠? 오릉은 박혁거세, 알영왕비 그리고 남해왕, 유리왕 그리고 5대 파사왕, 이렇게 다섯 분의 왕과 왕비가 묻혔다고 오릉이라 부른답니다. 박혁거세 거서간은 신라 56임금님 가운데 왕위에 가장 오래 계셨답니다. 열세 살에 임금이 되어 무려 61년 동안이나 임금님 자리에 계시다 74세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 가 버렸다고 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신하들은 영문을 몰라 걱정을 하는데 7일 만에 왕의 시신이 다섯 토막이 나서 도로 땅으로 떨어 졌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시신을 한곳에 모아 장례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뱀이 나타나 시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게 자꾸 방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떨어진 장소 마다 다섯 개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오릉을 뱀이 방해 한 무덤 이라고 한자로 뱀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부른 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 하고 다섯 개의 무덤에는 첫 번째 임금이신 박혁거세, 그리고 그 왕비인 알영부인, 2대 남해차차웅(왕), 3대 유리이사금(왕), 5대 파사이사금(왕)의 무덤이라 전해 내려온답니다. 신라 4대왕 석탈해 이사금(임금)은 다른 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알영왕비의 탄생 전설

여기는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 알영부인이 탄생했다는 우물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난 후 어느 날 사량리의 알영정 가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일더니 큰 계룡(머리는 닭처럼 생겼고 몸은 뱀처럼 생긴 용)이 나타나 샘가에서 꼬리를 흔들며 용트림을 하더니 왼쪽 옆구리에서 한 옥동자를 낳아놓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달려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잠든 아기는 예쁘게 생겼으나 어머니를

닮아 이상하게도 입이 닭의 부리처럼 뾰족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월성 북쪽 알천으로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물이 아기의 입에 닿자 뾰족하던 부리가 떨어져 버리고 예쁜 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거룩하게 여기며 고이 길렀는데, 아기 이름을 태어 난 우물 이름을 따서 알영이라 지었습니다. 알영은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씨도 어질고 지혜로웠습니다.

박혁거세 거서간이 즉위 하신 후 5년 후인 18세가 되던 해 여러 신하들이 권하여 알영을 왕비로 맞았다고 합니다. 알영 왕비는 거서간을 잘 도와 나라 사람들이 박혁거세 왕과 왕비를 성인으로 받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내려 옵니다. 경주에는 신라시대 우물이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김유신 장군 집터에 있는 재매정과 분황사에 남아있는 삼용변어정 그리고 황룡사터에도 신라시대의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알영정도 신라시대 우물 그대로입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탄생한 나정과 신라의 건국

이곳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내려 오는 나정입니다.

자 그럼 2천년 전의 전설 이야기를 들어 보실래요?

한반도 남쪽, 옛날 이 곳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고조선 유민들과 바다건너 중국 진나라 백성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그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하고 살았다고 해서 진한 땅 이라 불렀답니다. 온화한 기후와 기름진 땅에 작은 여섯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섯 마을 중 고허촌장이 금오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정 우물가에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빛일까?' 생각하며 그 곳으로 갔더니 우물가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커다란 붉은 알을 앞에 두고 절을 하고 있었답니다. 더 가까이 갔더니 말은 그만 알만 남겨두고 하늘로 날아 가 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사라지는 말을 보다 정신이 든 촌장은 큰 알을 깨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알 속에는 잘생긴 사내아기가 있었답니다. 아기가 태아 난 것을 축하라도 하는 듯 주의에 온갖 동물들이 모여 지저귀며 춤을 추며 축하 하였다고 합니다.

'음! 이 알은 분명히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촌장은 아기를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을 '박'씨로 지었죠, 그리고 이름은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박 같은 알에서 태어나 밝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랍니다. 아기는 총명하고 훌륭하게 자라 어느 듯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 날 6부 촌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섯 마을이 각각 사니 앞으로 힘센 나라가 처 들어 와 이 땅을 빼앗는다면 평화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을 지킬 수가 없소. 그러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하고 제안 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훌륭한 임금님으로 누구를 모셔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 때 고허촌장이 벌떡 일어나 13년 전에 태어난 박혁거세 이야기를 한 후 “그 때 태어난 하늘이 주신 그 소년이 지금 열 세 살이오, 우리 모두 그를 첫 번째 임금님으로 모시면 어떻겠소?” 하니 다른 촌장 모두가 찬성을 하여 박혁거세를 첫 번째 왕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7년 지금으로부터 약 2천여 년 전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때는 왕이나 임금으로 부르지 않고 박혁거세거서간 이라고 하였답니다. 우두머리란 뜻이랍니다. 기원전 57년, 이때부터 935년 신라가 멸망 할 때 까지 992년 동안 신라가 왕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확하게 992년이지만 우리는 신라 천년왕조라 부르지요. 자 다음은 여섯 촌장의 위폐를 모신 양산재로 가겠습니다.

양산재

이곳 양산재는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에는 여섯 마을이 모여 살았다고 했죠? 그 여섯 마을 을 다스리던 촌장들도 모두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해요. 그 여섯 마을은
첫째 알천양산촌인데 촌장은 알평공이며 표암봉에 내려와 급량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돌산 고허촌인데 촌장은 소벌도리공이며 형산에 내려와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무산 대수촌인데 촌장은 구례마공이며 개비산에 내려와 모량부 손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취산 진지촌인데 촌장은 지백호공 이며 화산에 내려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금산 가리촌 또는 한기부인데 촌장은 지타공이며, 명활산에 내려와 한기부 배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명활산 고야촌인데 촌장은 호진공이며, 금강산에 내려와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씨가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곳 양산재는 이 여섯 분의 위폐를 모셔놓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자 이제 멋있는 한옥, 월암재로 이동 하겠습니다.

월암재에서 한옥체험

이 곳은 월암재입니다. 노송과 어우러진 월암재에서 이 마을에서 생산 된 감자(계절따라, 고구마, 옥수수, 과일 등)를 드셔 보세요. 한옥에서 먹어보는 맛이 색다르게 느껴지세요? 차와 감자를 드시면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덜컹거리는 소달구지(경운기)를 타고 시골의 향긋한 풀내음 맡으며 남산으로 떠나 볼까요?

여기는 돌기둥만 두 개가 남았네요

이 돌 기둥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남간사지입니다. ‘사지’라는 말은 절터라는 의미인 것 다 아시죠? 이 절터는 신라의 유명한 고승이신 명랑법사의 어머니이며 자장율사의 누이동생인 남간부인이 창건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이 곳에 당간지주만이 덩

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간지주가 뭘까요? 절마다 입구에는 당간 지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절마다 있었답니다. 절의 입구를 표시하기도 하고 불화를 걸거나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알리기 위해 '당' 그러니까 깃발을 세웠던 기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기 게양대 같은 거죠. 이 곳 옆에는 명랑법사에 의해 창건 되었다는 금광사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금광사 본기에 의하면 명랑이 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 올 때 해룡의 청으로 용궁에 가서 비법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룡은 황금 천 냥을 댓가로 주겠노라 하였고, 그 뒤 황금 천 냥이 자기 집 우물 속에서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자기 집을 절로 삼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 했는데 금빛이 찬란하여 절 이름도 금광사라 불렀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신라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집에도, 부처님도, 탑에도, 죽은 사람에게도 금으로 장식을 하였을까요? 근처에 있는 금광못 자리가 바로 그 절터로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기 산 아래 쪽이 금광사지라고 전하는 데 안타깝게도 절터라고는 흔적도 없습니다.

신라 최초의 궁궐터가 여기래요!(창림사지)

이곳은 절터이기 이전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왕께서 최초의 궁궐터로 정한 곳이라고 전하는데 지금은 궁궐의 자취라고는 찾을 수가 없고 절터의 주춧돌들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여기 비록 아무렇게나 땅속에 박힌 주춧돌이지만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창림사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문성왕 17년때에 창림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머리가 없네요?(머리없는 불상)

1964년 동남쪽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없어진 머리는 아마도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에 파괴된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은 불안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머리와 두 손은 파손되었으나 그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어께 에서 늘어뜨린 가사 매듭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매듭은 신라시대부터 전해내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전성기인 8세기 불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입술 부처님(마애관음보살)

왼쪽 위를 보세요. 또 한분의 부처님이 서 계시죠? 산등성이의 길쭉한 바위를 깍아 1.5m 가량의 보살상을 새겼습니다. 다같이 올라가 볼까요? 이 부처님은 머리에 화

불, 왼손에는 정병을 들어 한 눈에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누구나 이 부처님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며 소원을 빌면 모두 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이 불상을 새긴 장인이 바위면 붉은 부분을 입술에 오도록 조각하여 아직도 입술 부분이 불그스레하며 부드러운 미소가 돋보여 경외심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저녁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이 불상을 비출 때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정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소원을 빌면 금방이라도 하강하시어 소원을 들어 주실 것 같은 신비감을 주는 부처님 입니다.

그림으로 그린 여섯 분의 부처님(선각육존불)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선으로 그림을 그린 듯 음각한 부처님이 한 곳에 여섯분이나 계시네요. 다듬지 않은 큰 바위 왼쪽과 오른쪽 바위면에 각각 여래삼존상을 선각 하였습니다. 자연 바위에 선각을 새겼으니 조각이라기보다 그림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동쪽 면 가운데에는 현세 인간의 생명을 거느리시는 석가여래가 연꽃위에 앉아 계시고 문수, 보현, 보살이 양 옆에 협시로 서 계십니다. 서쪽 아미타삼존은 본존여래가 연꽃위에 서 계시고 오른쪽 대세지보살과 왼쪽 관세음보살은 꽃 쟁반을 들고 앉아 계십니다. 보통은 여래가 앉고 협시보살이 서 계시는데 이곳은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여래는 서서 계시고 협시 보살들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내영아미타여래상(來迎阿彌陀如來像)이라고 부르는데 석가여래는 생명을 다스리는 현세 부처님이고 아미타여래는 극락의 부처님인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목숨을 다하면 현세 부처님이신 석가여래가 극락을 다스리는 아미타여래에게 그 영혼을 인계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아미타여래가 지상으로 하강하여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인계 받는데 이곳에 내영아미타삼존이 새겨진 것은 이승에서 저 세상인 극락세계로 생명이 인계되는 중요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부모를 여원 효자 효녀들이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눈물로 빌던 장소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남산에서 가장 소박한 부처님(삼릉마애여래좌상)

높이 10m쯤 되는 바위면 연꽃위에 얼굴은 약간 돋을새김을 하고 아래는 선각으로 처리 한 여래좌상입니다. 투박한 모습은 부처님이라기보다 어느 소박한 서민의 얼굴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추정 합니다. 발 아래로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져 보이네요. 포석정에서 궁녀 죽라가 가로질러 달려갔던 들판이 보입니다. 저 멀리 왼쪽 강이 굽은 곳이 죽라소라 추정하는 곳 입니다.

못난이 부처님이 꽃 단장 했어요(석조여래좌상)

보물 666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연꽃 대좌 위에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아래 턱 부분이 깨어져 윗부분 반이 남아 있었으나 1970년 이전 어느 민간인이 깨어진 얼굴을 시멘트로 보수하여 흉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잘 보수가 되어 제 모습을 찾았지요. 서쪽을 향하고 있어 아미타여래로 추정 합니다.

앉아 계시는 부처님 중에 가장 큰 부처님(마애대불)

남산에서 가장 큰 좌상이 있는 이곳은 서남쪽으로 시야가 확 트여 멀리 산봉우리와 들판이 시원스러운 아름다운 곳입니다. 7m가 넘는 거대한 바위에 머리와 광배는 1m 정도 돌출되게 조각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마치 바위 속에서 인간 세상으로 얼굴을 쑥 내밀며 나타나시는 모습 같습니다. 옛날 신라 때는 부처님이 바위 속에 계시다 필요하실 때 인간세상 밖으로 나오신다고 믿었답니다.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 손은 연꽃 대좌 위에 결가부좌 한 다리 위에 올려 놓아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9세기경의 불상으로 추정 합니다.

통일전

이곳 통일전은 신라삼국통일의 정신을 오늘날 되새기기 위해 통일의 영웅이신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그리고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각각 비석을 세우고 영정을 모셔 놓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며 그 당시 통일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신 전투장면들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첫사랑

신라 삼국통일을 이루신 김유신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김유신장군은 신라 왕족이 아니고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의 증손자입니다.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후 신라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신라사회는 골품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는데 신라 왕족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답니다. 훌륭한 김유신장군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김유신에 이르기 까지 3대에 걸쳐 신라에 공을 세웠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족 김춘추와 사돈을 맺어 결국 그 후손들이 통일 후 무려 120여 년동안 왕권을 누린답니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셨던 김유신도 16세 때 어느 예쁜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그녀 집에서 놀기만 하니 어머니이신 만명부인이 하루는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그 여인 집에 발을 끊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굳게 약속을 한 후 김유신은 착실한 화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화랑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기운에 그만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어 말고삐를 스르르 놓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잠이 들어 어디를 갈지 모르는 말은 “옳지, 오늘도 주인님이 그 여인 집에 가겠지.”하고 스스로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 발자국 소리에 천관녀는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달려나와 “도련님”하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유신은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고는 “아뿔사, 이거 큰일 났군!” 잠이 든 사이 그만 말 때문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겨 버렸습니다. 유신은 말에서 내려 아끼는 말의 목을 칼로 내리쳐 죽여 버리고 천관을 뒤로 한 채 뚜벅 뚜벅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관은 울며 지내다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고 절로 들어 가 비구니 승이 되어 평생을 사랑했던 한 남자를 생각하며 살다 돌아가셨답니다. 김유신 장군은 천관녀가 돌아가신 후 그 여인을 위해 그 자리에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딴 “천관사”라는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은 결혼을 60세가 되어서 하였다니 아마도 그 첫사랑을 평생 못잊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을 이룬 후 78세를 일기로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원수의 나라 백제를 기어코...

신라 29대왕이신 태종 무열왕은 25대 진지왕의 장남 김용수의 아들이며 26대 진평왕의 장녀 천명공주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인 용수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인 천명부인이 삼촌인 용춘에게 재가하여 작은 아바지인 용춘의 양자가 되었으며 15세에 화랑도가 되고 24세에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 높은 벼슬에 올라 외 할아버지인 진평왕, 고모인 선덕여왕 그리고 사촌 고모인 진덕왕에 이르기 까지 나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624년에는 백제장군 윤충이 대야성(합천)에 쳐들어와 함락시키고 성주로 있던 사위 품석과 딸 고타소를 잔인하게 죽인 모습을 보고 몇 날 몇일을 밥도 먹지 못하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그 모습을 본 후 김춘추의 마음속에는 항상 백제를 복수하고 멸망을 시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그 당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간에 치열한 국경 전쟁으로 성을 빼앗고 빼앗김을 반복하였습니다. 김춘추는 외교관계를 통해 백제를 고립시키고 결국은 멸망을 시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에 갔다 오히려 연개소문에 의해 갇히는 신세가 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외교관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군사적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덕여왕 때인 647년에는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인 비담이 난을 일으켜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결국 비담의 난을 김유신과 힘을 합해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660년 정월 무열왕은 김유신을 상대등(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또한 많은 어려움 끝에 당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 고종은 대장군 소정방을 대총관으로 삼고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을 부총관으로 삼아 13만 군사를 파견하고 무열왕은 태자 법민(30대 문무왕)과 장군 김유신에게 5만 군대를 안겨 소정방과 연합하여 백제를 총 공격 하였습니다. 김유신과 품일 등이 군대를 세 갈레로 나눠 네 번이나 공격을 하였으나 적진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김유의 동생 흠순은 자신의 아들 반굴에

게 적진을 돌파 할 것을 명령했으나 반굴은 계백을 당해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창에게 적진을 뚫을 것을 명령 하니 관창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오히려 계백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계백은 어린 관창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돌려보냈습니다. 관창은 화랑의 임전무퇴 정신으로 다시 말머리를 돌려 적진으로 달려들었으나 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은 그의 머리를 베어 말안장에 메달아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라군들은 관창의 용기와 베어진 머리를 보고 분개하여 용기를 북돋우어 모두가 죽을힘으로 벡제 진영에 진격하니 백제군은 크게 패하고 계백장군도 전사 하였습니다. 계백장군이 죽고 진영이 무너지자 백제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해 7월 12일 사비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하였으나 결국 7월 18일 의자왕과 태자는 장수들을 데리고 나와 신라에 항복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라가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하는 데는 화랑정신으로 무장된 많은 화랑도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신라 왕족들의 엘리트 집단 화랑도

여러분! 신라 화랑도 잘 아시죠? 신라는 화랑제도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세 개의 제도가 있었답니다. 신라는 화랑도가 있었기에 삼국통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잘 아시죠?

첫째는 화랑제도는 신라 사회에 유망한 왕족 또는 귀족의 자제들의 사교집단 이였으며 인재 양성기관 이였습니다. 진흥왕 때 원화제도가 화랑으로 바뀌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조직으로 변화 하고 덕망 높은 귀족 남성을 지도자로 삼고 그 아래 수백 명의 낭도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매일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단체로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여행을 하며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벗과의 '신의(信義)'와 가정에서의 '효도(孝道)'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수련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백제도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화백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임금님도 화백회의에서 추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골품재도입니다. 신라사회는 성골 신분만이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뼈 즉 양 부모 모두 순수한 왕족의 혈통을 성골이라 합니다. 진평왕은 아들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딸인 덕만공주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선덕여왕도 자식이 없어 그 다음왕도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인 진덕여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29대 무열왕은 진골신분의 첫 번째 왕이셨습니다.

김춘추, 무열왕은 진지왕의 손자로 성골신분 이였지만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왕위에서 쫓겨나 그 후손들이 진골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라사회는 화랑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내려 옵니다. 화랑정신 중에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중하게 여긴 맹세를 굳게 다지는 서약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입니다. 여기에는 두 젊은이가 하늘에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3년 뒤에는 나라에 충성하고 도의를 굳게 지녀 허물없기를 다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신라의 젊은이들이 국가의식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랑들은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말타기, 달리기, 뛰뛰기, 헤엄치기, 산타기, 짐지기, 전투놀이(진陣뺏기), 줄다리기, 팔매질, 씨름 등의 각종 기예를 연마 하였고 노래와 춤으로 서로 풍류와 멋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다함, 무관랑, 반굴, 김유신, 김춘추, 등등 역사속의 유명한 인물들이 모두 화랑출신 이였습니다.

여기는 화랑교육원입니다. 경북지역에서 영특하고 슬기로우며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화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게 이 곳에서 화랑의 정신을 체험해 보실 기회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 되시나요?
(국궁체험, 다도체험 등 진행)

탑곡 부처바위(탑곡마애조상군)

이곳의 절은 일제 때부터 옥룡암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암자는 불교유적과 자연경관을 한 자리에 모은 곳에 있는데 경주 사람에게는 불국사와도 같을 정도로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부처바위는 불교유적 중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유명한 탑곡마애조상군, 곧 부처바위이죠. 이 부처바위는 사방 바위 면에 불교세계의 각가지 형상을 새겼는데 탑, 불상, 승려상이 있고 비천상, 사자상, 여러기의 비천상 공양하는 스님상, 보리수 나무아래 선정에 든 스님상 등 무려 30여점에 달하는 여러 형상이 한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 흔히 있는 사방불과도 다른 점입니다. 대일여래 이신 바로 자나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방 온 누리에 화려하고 장엄한 부처님 세계가 열린다고 하였으니 이 곳이 바로 화려한 부처님 세계를 나타 낸 곳이죠. 그 뿐 아니라 이 부처바위에 새겨진 탑의 모양을 통해서 신라 때 있었으나 지금은 알길 없는 신라 목조탑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답니다.

북면

가운데에 석가여래좌상이 있고 그 좌우에 크고 화려한 탑을 조각 했고 그 앞에 각각 한 마리의 사자가 부처님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에는 천개가 있고 그 위에는 여럿의 비천상이 있으니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한 부처님세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두 개의 탑은 목탑의 형상인 것 같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를 완전히 갖추었고 상륜부는 노반, 용차, 보주에 이르는 전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 신라 목탑의 모양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동탑은 9층 서탑은 7층입니다.

서면

서쪽 면은 면적이 작은 탓으로 한 분의 불상과 불상 주위의 장식물과 그 위를 나는 한 분의 비천상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약합을 든 약사여래상 입니다.

동면

세 개로 갈라진 바위가 3면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넓은 아래 쪽에 삼존불을 새겼는데 연화대에 앉은 부처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는 향로를 받든 수도승이 있고 부처님 머리위에는 극락세계를 축복이라도 하듯 여러 명의 비천들이 천의자락 나부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마모가 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 바위가 촉촉이 젖어 있을 때 보면 잘 보인답니다. 가운데 에는 보리수 아래 앉아 성불하는 아미타여래를 새긴 듯하며 위쪽의 셋째 면에는 또 한분의 여래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바위 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있어 가운데 부처님이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여래상으로 본답니다.

남면

이곳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동, 서로 두 쪽이 되어있는데 그 중 동쪽 면에는 삼존불좌상이 있고 서쪽 면에는 얇은 감실을 파고 그 안에 한 여래상을 조각 했고 한분의 여래상을 입체로 조각하여 바위면의 단순함을 커버 하여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 우리 조상의 예술적인 면을 엿보게 합니다. 이 곳 부처바위에 있는 조각들은 어느 곳의 사방불에서도 볼 수 없는 성불에의 과정과 사방정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세계를 모두 담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이한 예로 신라불교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석탑, 석등자리, 금강역사가 조각된 문주형의 석주도 있어 그 옛날 신라인들이 이 자리에 밝혔던 법등이 얼마나 성했는가를 상상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이 곳에 탑이 있었다고 옛날부터 탑곡이라 부른답니다.

신라의 마지막 페이지...(포석정)

자 우리 이제 포석정에 왔습니다. 이 곳 포석정은 통일신라 왕실에서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즐기던 즉 「유상곡수연」을 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55대 경애왕이 이곳에서 궁녀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다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아 자결을 하고 신라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포석'이라 새겨진 명문 기와 조각이 발견 되었습니다. 군신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던 정자도 있었겠지만 '포석사' 즉 사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대 임금님과 조상들의 위폐를 모시고 남산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던 신성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49대 헌강왕은 어느 날 이곳에 오셔서 남산 신에게 제를 올리고 군신들과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임금님께서 "여러분, 좀 조용히 하시오"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신

하들은 영문도 모르고 모두 조용했는데 한 참을 지난 후 “자, 이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아도 좋소.” 하셨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께 그 이유를 묻자 “방금 이 곳에 남산 신이 오셔서 한바탕 춤을 추고 가셨소,” 하시니 신하들이 “저희들은 아무도 못 보았으니 어떤 춤이지요?” 하니 임금님께서 직접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임금님이 추어 보인 그 춤을「어무상심무」라 불렀는데 고려시대 까지 백성들에게 널리 유행을 하였다는 전설이 전하여 온답니다.

포석정에 잔을 띄우면 물이 빨리 흐르는 곳, 천천히 흐르는 곳, 그리고 잔이 머무는 곳이 12군데라고 합니다. 제사를 올리고 난 후 임금님과 군신들은 음식과 술을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나누어 마셨던 장소입니다. 화강암에 과학적으로 조각한 조상의 슬기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답니다. 원래는 입수구에 멋있는 거북모양의 조각이 있어 거북의 입으로 물이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곳으로 물을 공급한 못이 지금도 뒷 남산 기슭에 배상지 라는 신라시대 못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수구 거북은 조선시대 경주에 부임한 어느 부윤이 조상 무덤이 있는 안동으로 가져갔다 하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55대 경애왕이 궁녀들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놀이에 빠져 나라가 망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애왕이 이 곳에 온 시기가 음력 11월 말,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말, 물이 흐르지 않는 추운 겨울에 안압지를 두고 이곳에서 연회를 즐기지는 않았겠죠? 통일신라가 말기로 가며 점점 쇠퇴하여 다시 후삼국시대가 되어 나라가 세 조각이 났죠. 신라가 그 중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신라를 노리던 견훤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경애왕은(왕4년 927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원군을 청하고 기다렸으나 먼저 후백제 견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에서 애타게 원군을 기다리던 경애왕은 초조한 나머지 남산성으로 피신을 가던 중 이곳 포석사로 오셔서 조상신과 남산 신에게 제발 나라를 지켜 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답니다. 제사도 끝나기 전 견훤의 습격을 받아 군신들은 모두 잡혀 죽고 왕비는 겁탈 당하고 경애왕도 마지막 이곳에서 자결을 하였답니다. 견훤은 경순왕(김부)을 왕으로 세운 뒤 그 삼촌을 인질로 잡고 보물과 병기를 빼앗고 왕경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곳 포석정은 신라 임금님들이 궁녀들과 술잔치를 벌이던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군신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또한 남산 신에게 국가 안위를 위해 제사를 올리고 때로는 왕족들의 결혼식을 하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 곳 포석정 주위는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나무와 주위 나무 아래는 많은 야생화가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현재의 경주에서 신라를 많이 느끼셨나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자연자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